

주의 공현 대 축일

기도서 237면(가해)
제1독서 : 이사60, 1-6
제2독서 : 에페 3, 2-3 a, 5-6
복음 : 마태 2, 1-12

순정이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있는 아기를 보고 옆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0-11).

강론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 재후/노송천주교회

주의 공현 축일이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소 한듯 하여 삼왕래조(三王來朝)라는 말로 더 잘 통한다. 그러나 주의 공현의 관념과 뜻은 삼왕래조가 아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 하셨다는 사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공적으로 드러낸 것이 공현이며 또 그 구원 하시는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천하만민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상기 시키는 날이 바로 오늘 예수 공현 축일인 것이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러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 때를 놓칠세라 돈벌이에 정신 팔린 장사꾼들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때였다. 이곳에 색다른 세동방박사들이 찾아 왔다. 그들은 별을 보며 개인이나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진리탐구의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의 여행 길에는 많은 어두움이 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울법이 잠들어 버린 어두운 밤을 생각해 보자. 약한 백성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간 곳 없이 베들레헴의 어린 사내들은 죄 없이 죽어갔다.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들어 버린 나라였다. 법이 칼을 다스리느냐, 칼이 법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칼을 다스리면 법치국가이다. 칼이 법을 다스린다면 이 나라는 독재국가이다.

이런 거리로 박사들은 진리를 찾아 왔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도 기쁨이 있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 별을 보고 하느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느 유행한 정치가의 손에 의해서 요리 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용사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도 아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흑암이 덮인 세상이지만 고요한 구유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이 사회가 부패 했다 해도 새로운 왕자가 태어 났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계의 소망을 예수 안에서 찾아 본 것이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기뻐했던 이 예물은 그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과 몸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권력 전체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표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서 이 세계를 위하여 사는 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된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드리고도 기뻐한 것이었다.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소리

“왜 가톨릭(Catholics) 교회인가?”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톨릭 (Catholics) 교회」라 부른다. 이 ‘가톨릭’이란 술어를 맨 처음 사용한 분은 스피르나에서 순교한 성 이나시오(AD107)이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Ubi Christus, ibi Catholica Ecclesia=그리스도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즉 하느님께서 아니 계신 곳없이 다 계시듯 우리 교회는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가장 보편(普遍)적인 교회라는 뜻이다. 2세기 말엽 예루살렘의 성 시릴로는 그의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까닭에,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포함한 교리를 가르치는 까닭에,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왕, 서민, 학자, 무식한 이, 가난한 이-모든 사람을 참다운 신앙에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 한다.”

오늘은 예수 공현 대축일이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빈부귀천, 유식, 무식,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것없이 모든 인간의 구세주임이 만방에 드러났음을 경축하는 날이다. 그리스도교가 가톨릭교임을 만방에 드러냈음을 축하하는 날인 것이다. 이처럼 예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셨건만 우리 아직도 편 가르기만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남한 북한, 경상도 전라도, 신부편 수녀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빈자, 우리모임 너희 모핌, 늙은이 젊은이, 우리 교회 네 교회, 우리 본당 남의 본당..... 무엇을 위한 편 가름인가?

순정이 산책



증언 다시 해라!

주의 공현(公現)

공현이란 말은 '나타남, 나타나어 보여줌'이란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옛부터 교회는 이 축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세가지의 중요한 신비를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세상에 알린다.

이상한 별의 인도로 동방의 세 박사(삼왕)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2, 11).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예물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상징하고 있다(마태2, 1-12참고).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고 변치 않으며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따라서 '왕으로 나신 분'께 드리는 마땅한 예물로서 예수가 비록 아가지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경신행위로 드리는 것인데 예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이지만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세 박사의 예물은 예수는 신인(神人)으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주의 공현은 주의 공현 다음 주일인 주의 세례 축일에서도 드러난다.

예수께서 사생활을 마치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모양으로 성신이 내려오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3, 17)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셨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주님을 드러낸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을 선구자 요한을 미리 보내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요한1, 34)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요한1, 30).

“교도소 후원에 동참을.....”

한 시대, 어느 사회의 문명을 가늠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중의 하나는 그 사회가 죄와 죄인을 어떻게 보고, 다루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높은 담과 철장의 교도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감옥이 왜, 어떤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명이며 몫입니다.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정성을 모으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는 갈고리고 묵인 자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돌 던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죄가 있어 감옥에 있고 죄가 없기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은 죄인임을 알게 되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죄인으로 판결하며 십자가형에 처한 인간들의 비리를 보며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적이 꼭 필요한 수인(囚人)들을 위하여 또 어떤 모습으로든 속죄해야만 하는 자신을 위해 이 「교도소 후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 천주교 전주 교구 사목국
사목국장 김 동준(야교보) 신부
전 화 : (0652) 85-0041
후원금 접수
전북은행 02-02-039982
국민은행 506-01-1290-473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창단 미사」

우리 교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창단 미사를 지난 25일 가톨릭 센터에서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님의 주례로 거행하고 축하연회를 열었다. 단장에는 전주 대학의 은희천 교수 상임 지휘겸 지도 신부에는 이 성우 신부 전임 지휘자 이 준호 형제가 각각 임명되었다. 성가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문의」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김대원(프란치스코)
전화85-0041

소비자가 만든 1,2,3만원대구두

MISS MAN
신사화 · 숙녀화

이 강 현 (비오로)
동문사거리 축현도지부 맞은편
☎ 6-8565

개업인사드립니다
신속과 친절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서일가스
정비오로·최마리아

☎ 71-0287, 72-0878
251-3555, 71-0288
4-3375

싱어롱과 포크댄스의 밤

일시 : 매주 (화) 싱어롱, 게임, 율동 (생활성가) (500원)
(금) 레크랜스, 포크댄스 (1,000원)
시간 : 7시~8시 30분
장소 : 전주백화점 4층 한마음홀
대상 : 청소년, 성인-남녀

한이음레크리에이션교육문화원
최종만(요한)
☎ 86-1472, 82-3640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영
☎ 84-7294

잡 관!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황금과 유함과 몰약은 아니더라도
여기 육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본시 없던 나 손수 지어 있게 하시고
죽었던 나 몸소 살려주셨으니
받으시옵소서.
넘으로 말미암은 이 목숨 이 사랑
오직 당신 것이오니 도로 받으시옵소서.

갈마드는 세월에 삶이 비록 고달팠고
어리석던 탐욕에 마음은 흐렸을망정
님이 주신 목숨이야 늙을 줄이 있으리까
심어주신 사랑이야 금갈 줄이 있으리까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시옵소서.

가멸고 기록해야 바쳐질 수 있다면
영원(永遠)이 둘이라도 할 수 없는 몸

이 가난 이 더러움을 어찌 하오리까.
이 가난 이 더러움을 어찌 하오리까.

님께 바칠 내것이라곤
이밖에 또 없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채 더러운 채
이대로 나를 바쳐드리웁은
오로지 나를 굳이 믿음이오라
전능하신 자비 안에 이 몸이
안겨질 때
주홍같은 나의 죄 눈같이
회이지리다.
진흙같은 이 마음이 수정궁처럼
빛나리이다.

(做 최 민 순신부 시집「님」에서)

요십이 (857) 김병오



금·은·보석·시계
(예물상당)
가 보 당
최 유호 (사무엘)
김 정자 (모니카)
중앙성당 → 전주시청 중간지점
(임신평정형외과 옆)
☎ 84-2243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명륜서예 학원
원장 선 기정 (요씨)
효자성당 옆
☎ 82-6492

대入종합반
개강 1월 15일
여러분의 의지와
한생의 의지가 만날때
소망스런 미래를 약속합니다
대입 전문 **한샘학원**
11-1990-74 7424

교 구 소 식

1. 재정심의회: 1월16일(화) 오전10시30분 참사회-1월16일(화) 오후2시 교구청 회의실
 2. 본당 선교분과 위원장 교육: 1월 21일(일) 오전10시 1990년도 본당 선교활동 계획 및 교황의 사도적 권고 교령 "평신도 그리스도인" 참가비6,000원(교제비 포함)
 3. 어린이 복사단 교육: 일시①남전주, 김제, 삼례지구-1990.1.8(월) 오전9시30분 ②북전주, 정읍, 이리지구-1990.1.9(화) 오전9시30분 ③군옥, 익산, 임산남, 무진장지구-1990.1.10(수)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초등부 복사단
 4. 전주 제4차 선택: 일시-1990.2.9-11 장소-천호피정의집, 대상-미혼 젊은이, 접수-교육국
 5. 중·고 임원연수: 일시-1990.1.20-22 장소-무주 자연학습원 대상-각본당 임원단
 6. 사회복지회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1월8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
 7. 전화번호변경: 부안천주교회-사제관(0683)84-1331 수·유84-1332 사무실84-1333
 8. 2개월 코스 수화반 모집: 대상-대학생 및 일반인 개강-1월8일 오후7시 장소-사회복지회 (구성모병원) 강의-월·목·토(오후7시) 강사-유희순 선생님 연락처84-5290
 9. 성빈첸시오 아·빠울로회 교구이사회: 1990년 총회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일시-1990년 1월13일 토요일 오후3시
 10. M.B.W(공동체 수련회): 1월9일-11일 천호피정의 집 신청-교육국 85-0041
 11. 테클라성소모임: 7일(일) 오후2시 성바로로 딸 수도회(성바로로 서위)
- † 저희 모친(송 마리아, 87세) 상 에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동준 신부-

90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효자웅변종합학원
제일예식장 뒤 ☎ 3-3284, 72-4417 삼천쌍용 아파트 앞
☎83-8331 ~ 2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원장: 유 병 철 (베드로)
원감: 박 경 애 (안젤라)
전주역 앞 ☎ 4-3948, 78-0034

한약 양약조제·한방보약
웅(元茸) 九蒸芎 人蔘
GN **영 세 당 약 국**
약사 정 우진 (이사약) · 황 신숙 (레베카)
전주시 완산국로 사거리 ☎ 8-8422, 8-5326 ※ 일요일은 휴무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사목회 위원 및 구역반회장 피정: 13일 3시~14일 5시 천호피정의 집
2. 예비자 모집: 1월28일까지 L.M.단원은 1인1도에 전력을 다함시
3. 어린이 복사단 연습: 8일 9시 가톨릭센터 회비2천원
4. 모임: 신우APT형제모임-8일8시 부녀회월례회-9일 어머니 미사후 성령기도회-11일 7시30분
5. 가정방문 반미사예물: 5,106,500원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6. 중·고 전례부 연습: 1월14일 오전9시 센터
7. 새 사목회 위원구성: 고문-노인석 김용환 이수용 김정순 감사-박태복 이대환 회장-노송남 부회장-장성복 정원용 총무-최만석 선교-임영빈 전례-문영석 재정-박일천 교육-유정호 홍보-김동주 청소년-신경철 사회복지-백종엽 애령-강인수 여성-송영순 구역-유정자 1월12일 저녁8시 각분과위원 전원 출석바람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사목회: 7일 저녁미사후
 2. 울드레아: 7일 공식미사후
 3. 대건회: 7일 공식미사후
 4. 빈첸시오회: 9일 오전10시
 5. 자도회: 11일 오전10시
 6. 안나회: 11일 오전10시
 7. 여성분과회: 13일 오전10시
 8. 꾸리아: 14일 오후2시
 9. 청년회: 14일 저녁미사후
-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최창기 ②이강남
봉헌-최창기씨 부부
- 차주전례: 해설-윤귀자 독서①정동민 ②김하형
봉헌-정동민씨 부부

*사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1.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성경읽기: 출애굽기1:1~7:7까지
 3. 축! 꾸르실로 수료: 양주태(노렌조) 단장님
 4. 금주전례: 해설-구영순 독서①유순천 ②장경자
봉헌-유순천 유정옥씨 부부
-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유순상 ②한영래
봉헌-유순준 유순상씨 부부
5. 사목회 임원명단: 회장-김종석 부회장-한동욱 이석남 선교-강덕용 박귀철 전례-김영신 김경재 재정-양대환 남현준 복지-이옥동 이승복 애령-최상우 오귀남 청소년-정한모 이충열 봉사-김재영 최인규 여성-김금자 구역-오철규 김봉길 교육-김원준 장진수 총무-여정진 박영미 감사-양주태 안윤기 고문-강문옥 이정우 유순천
 6. 구역장 선거: 다음주부터 각구역별로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명웅
수녀원 84-2276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 ②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 2시 ③성심회-1월13일(토) 오후2시
 2. 모임: 전례부-오늘 저녁미사후
 3. 알릴: ①복사단 교육-1월8일(월)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강당 ②교부금 미납하신 분 완납바랍니다. ③예미신자를 인도합니다.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성 노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공동체 수련회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9일~11일 천호피정의 집)
1. 미사변경: 1월9일 화요일 새벽미사 10일 수요일 미사 없음
 2. 꾸리아 모임: 공식미사후
 3. 구역·반장모임: 첫째주 화요일(9일)
 4. 1990년도 교부금 신입바랍니다.
 5. 청소년사: 서완산동 2가 서편

수익및 흑포제작 판매 합니다

연락처: (용머리성당 87-0441)

*전동

사제관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선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 ※성전보수 헌금 바랍니다.
1.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
 2. 반기도회: 9일~12일 각구역 반별로 실시 바람
 3. 나라를 위한 기도회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7시미사
 4.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목회 임원유임: 회장-안득수 감사-현홍
 5. 김다미안 수녀님 피정: 8일~13일(많은 신자들의 기도 바람)
 6. 유아세례: 13일(토) 오후3시
 7.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8. 구역장·반장모임: 15일 오전 9시 9. 레지오마리아에 연차충진목회: 일시-13일(토) 오후2시 단원 참석바랍니다.
- 금주보수비헌금액: 1,380,000원 □현재대금총액: 102,192.7원
□금주보수비신입액: 400,000원 □현재신입총액: 203,522.99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범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수녀원 87-0229

1. 구역장월례회: 공식미사후
 2.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신화생후원회 및 장학회원을 모집합니다. (1구좌당 만원)
 4. 교부금 미납금과 도자기 대금납부를 부탁드립니다.
 5. 종교학생을 위한 특별교리: 9일(화)~11일(목) 오후4시~6시
 6. 구역장 임명장 수여식: 1월7일(일) 공식미사중
 7. 매일 미사전에 성가연습이 있습니다.
 8. 금주전례: 해설-박연희 복사-김홍기 유광수 봉헌-이진국 부
- 차주전례: 해설-정순태 복사-오연호 서영상 봉헌-정현주 부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현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 ※교우 여러분 90년 새해에 하느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1. 국교생 영세 및 영성체: 1월13일(토) 오후2시 영세 첫 영성체-13(토) 3시 미사와 14(일) 11시 미사 중에 첫교백-13(토) 오전10시 2. 축 주의 공현축일: 오늘 3. 축 주의 세례 축일 내일 4. 구역봉사자 모임: 10(수) 11시 교육관 5. 새 예비자 교리: 14일부터 ①일요일반-9:30 ②수요일반-(수) 오후7 ③금요일반-(금) 오전10시40분 *예비자를 한분씩 인도하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6. 89교부금을 속히 납부해 주시고 90년 새해 교부금을 정성껏 입합니다.
 7. 금주 청소년담: 쌍용서편
- 구유헌금: 98,150원 성탄 성미 헌웃 봉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참 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드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저녁미사후
 2. 성모회: 12일(금) 어머니미사후
 3. 공식미사: 독배-12일(금) 오후3:00 이서-12일(금) 7:30
 4. 꾸르실로 수감: 김광택(가별) 박종일(안드레아)
 5. 교부금은 월별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6. 가정방문: 10일 오후 동원반
 7. 예비자 모집: 수요일 오전9:30
- 차주모임: 울드레아
-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정상수 ②조숙혜
기도-이종권 백숙명
-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세중 ②이홍호
기도-이시영 김정순